

## 밀레니얼 세대, 베이비부머보다 소득 20% 적어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는 부모 세대인 베이비부머(1946~1964년생)가 자신들과 같은 연령 때에 벌던 소득보다 20% 적게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수준은 높아졌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CNBC 방송은 전날 비영리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의 최근 보고서인 '떠오르는 밀레니얼 빈부격차'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세대 간 부의 격차는 역사적인 수준으로 벌어졌다. 이 연구소의 리드 크레이머 국장은 "2016년 밀레니얼 세대의 평균 부는 1989년 같은 연령대와 비교해 41% 줄었다"고 말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자료를 봐도 밀레니얼 세대의 평균 자산은 16만2천 달러로, 같은 나이일 때 X세대(1965~1980년생)가 보유한 평균 자산(19만8천달러)보다 적었다.

이 보고서는 "교육 수준은 높아졌

으나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밀레니얼 세대의 대졸자 비율은 거의 40%이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는 25%가량이었으며 X세대도 30% 수준이다.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줄어든 밀레니얼 세대의 취업 기회와 낮아진 임금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게다가 밀레니얼 세대의 다수는 비싼 대학 교육비로 인해 학자금 대출 등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밀레니얼 세대의 결혼, 주택구매 등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미래 세대에게도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레이머 국장은 "과거와 비교해 정해진 소득은 미래를 위한 노력에 회의감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상위 10% 계층이 받은 소득의 비중은 1992년 38%에서 2016년 50%로 높아졌다.

## 지방선거 민주당 승리 트럼프, 재선거도 '빨간불'

대선을 1년 앞두고 실시된 켄터키, 버지니아, 미시시피, 뉴저지 등 4개 주 4개주에서 5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경고음이 울렸다. 전체 50개 주 중 4개 주에서만 실시된 '미니 지방선거'였지만 내년 11월 3일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엿볼 '대선 풍향계'라는 평가도 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장 주목할 부분은 공화당의 전통적 텃밭으로 승리가 예상된 켄터키 주지사 선거 결과이다. 6일 현재 집계 결과 민주당 앤디 베서 후보가 49.2%를 득표해 공화당 매트 베빈 현 주지사(48.8%)를 접전 끝에 따돌린 것으로 나왔다. 켄터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 30%포인트의 큰 격차로 이긴 곳이자, 이번에도 선거 전날 저녁 직접 유세에 나서 '민주당 심판'을 외친 곳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뼈아픈 부분이다. 다만 근소한 표 차에다 베빈 주지사가 승복하지 않아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무난한 승리를 기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선 '안방'을 내주는 불의의 일격을 당한 셈이어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경합주인 '스윙 스테이트'로 분류되며 큰 관심을 받은 버지니아에서는 민주당이 주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며 승리했다. 민주당이 이곳 상·하원에서 모두 승리한 것

은 26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뉴저지 하원 선거와 미시시피 주지사 선거는 당초 예상대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같은 결과는 이번 선거 승리를 통해 민주당의 탄핵 조사의 그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재선 준비로 들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는 결과가 나오자 조사의 신빙성 자체를 문제 삼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 선거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냉랭한 민심을 확인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방선거는 중간선거나 대선처럼 전국 단위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매우 낮아 정확한 민심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농촌 지역의 보수층은 전국적인 탄핵 정국 때문에 많은 수가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은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선거일에 활력을 띠었다고 평가했다.

16일 예정된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주의회 선거도 관심사다. 루이지애나는 전통적인 공화당 안방으로 통했지만 2015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깃발을 꽂은 이번을 일으킨 곳이어서 이번 선거와 맞물려 귀추가 주목되는 곳이다.

### 청해 선생과 풀어 보는 한주간의

11월 11일 ~ 11월 17일, 2019년

## 띠별 운세

청해 역학 학술원(淸海易學學術院)  
예약전화: (714) 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남자 길일 : 11, 12, 15, 16

여자 길일 : 13, 14, 17



좋은 협조자를 얻고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막히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점차 뜻과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모하는 일은 서남쪽이 이로우니 그리로 가면 협력자를 만나서 뜻을 이루게 됩니다. 주위에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되겠지만 지나친 방심은 금물입니다.  
금전○애정△건강○



지금까지 막히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점차 뜻과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활동함으로써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분명한 삶의 목표를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나태하다면 좋은 운을 그르칠 것입니다. 도모하는 일은 서남쪽이 이로우니 그리로 가면 협력자를 만나서 뜻을 이루게 됩니다.  
금전○애정△건강○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유망한 사업을 발견한다면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차근차근하게 계획을 세우고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먼 곳까지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주변 사람과의 조화를 우선하여 겸손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윗사람이나 동료들 가까이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뜻과 같이 행동하겠으니, 스스로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한편, 이리저리 움직이는 바람과 같이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우유부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소인배의 감언이설에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주위에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되겠지만 지나친 방심은 금물입니다. 한편, 특별히 움직이고 가야 할 곳이 없을 때에는 안정을 취하고 실력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 상대방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관대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서로 간의 기(氣)를 소통함으로써 서로 화합해질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



안전한 것을 선택하고 훌륭한 협조자를 얻으면, 흉이 변하여 길이가 될 것입니다. 험한 것을 보더라도 조심하여 머물러 있으면 편안해지는 법이니, 무모한 용기를 부리거나 모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을 관망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도모하는 일은 서남쪽이 이롭고 동북쪽은 불리합니다. 대인을 만나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니, 마음을 끈고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뒤에는 태평해지는 운세입니다. 무리하게 일을 벌이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힘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획하는 일은 앞뒤를 잘 살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일을 도모할 때는 사전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또한 적절한 시간을 잘 맞춤으로써 행운과 성공을 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



지금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인사 관리, 자금 운용이 중요합니다. 교섭과 거래는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에는 신중해야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살피고 덕을 쌓아야 합니다. 작은 돈이 들어오고 큰 돈이 나갈 염려가 있으므로 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전△애정○건강○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경쟁이 심해지고 혼란이 생기면, 지도자는 강직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 법. 이를 본받아 스스로 자만심을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면 복록이 따를 것입니다. 내부 관리에 충실하고 성심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협력자나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금전○애정△건강○



지금까지 하던 일을 재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새로운 일을 도모한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겨울 철에는 다시 봄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스스로의 실력 향상에 주력하고 내부 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흐트러진 심신을 바로잡고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법. 경솔하게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애정○건강○



중전에 떠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태양처럼 운세가 왕성합니다. 마치 가을철에 풍년을 맞은 모습입니다. 재물이 풍족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되니, 세상만사가 태평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언제까지나 중전에만 머물지 않듯이, 현재의 행운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오래 보전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주변의 환경 변화를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시대의 추세에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



순풍에 돛단 격입니다.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을 도모하게 되는 전환기로서, 물위에 바람이 불어오듯이 상쾌한 기분으로 큰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고 마음속의 근심에서도 벗어납니다. 작은 일보다는 큰일, 낡은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확고한 의지와 신념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